유식과 인지심리, 마음 치유를 모색하다

6월 7일,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통도사 반야암서 학술대회
현대인 마음병, 유식학으로 조명
"유식, 마음 꿈 해결 불교심리학"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6월 7일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인지심리학과 유식의 마음작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학술대회 단체 기념촬영. (앞줄 왼쪽부터 김성태 이사장, 원장 지안 스님, 이정희 동의대 교수, 뒷줄 왼쪽부터 김명우 · 구자상 · 조수동 · 김희 · 최성호 · 이길산 · 박재용 교수)

불교의 심리학인 유식학과 현대 인지심리학을 교차해 마음의 본질을 분석하고 치유를 모색하는 학술의 장이 열렸다.

사단법인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스님)은 6월 7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2026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인지심리학과 유식의 마음작용-변행, 별경, 선심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의 마음 분석법을 현대 심리학의 언어로 풀어낸 연구들이 잇따라 발표됐다.

먼저 김명우 동의대 교수는 유식 문헌에 나타난 마음의 작용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유식학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등 우리가 겪는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불교의 심리학"이라며 "우리를 괴롭히는 잘못된 착각(전도몽상)의 원인을 찾고, 선한 마음을 길러 번뇌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고 서론을 열었다.

이어 불교에서 말하는 5가지 특별한 마음 작용(원함, 확신, 기억, 집중, 지혜)을 현대 인지심리학의 개념들과 비교 분석했다. 그는 "인지심리학은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하고 집중하는 능력을 키워 자아를 강화하지만, 불교의 유식학은 오히려 내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번뇌를 가라앉혀 완전한 평안(열반)에 이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두 학문의 차이점을 짚었다.

이길산 경남대 교수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인 참(慚)과 괴(愧)를 통해 불교의 도덕 심리학적 측면을 살폈다. 이 교수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참과 남을 의식하는 괴는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악행을 막고 선행을 이끄는 핵심적인 도덕 감수성"이라며 초기 불교 문헌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성유식론〉을 바탕으로 "이 두 마음은 선한 행동은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악한 행동은 멀리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풀이했다. 나아가 "불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으로 다가가려는 동기와 악을 피하려는 동기가 어떻게 결합해 윤리적 행동을 만드는지 분석해 낸 정교한 심리학"이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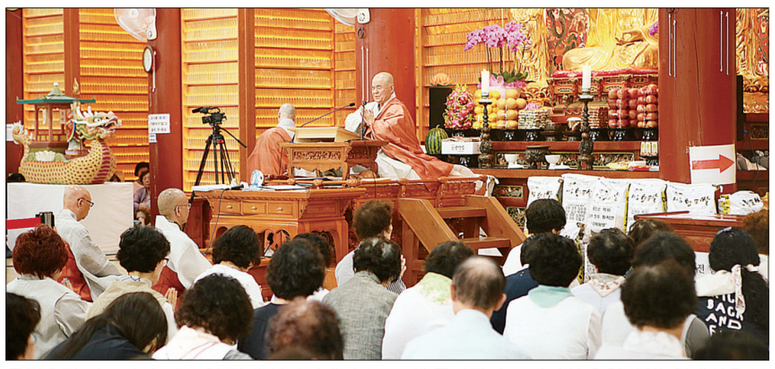
강형철 동국대 교수는 현대 정신질환인 다중인격(해리성 정체성 장애)을 유식학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강 교수는 "자아에 집착하는 마음(제7 말나식)이 이 조각난 기억들을 번갈아 가며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다중인격"이라며 "제7 말나식이 특정 명언종자 무리를 '나'라고 집착하는 아집을 내려놓고 평등성지를 획득할 때 분열된 인격들은 하나의 청정한 대원경지 안으로 온전히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이정희(동의대), 최성호(서울대), 박재용(동국대) 교수의 논평이 이어졌으며, 조수동 명예교수(대구한의대)의 진행으로 총평 및 폐회가 진행됐다.

이날 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지안 스님은 "불교를 일반 대중들이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고, 지성의 연대를 도모하며 불교의 참된 본질을 알리자는 취지로 연구원을 설립한 지 어느덧 15년째가 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학술대회와 교양 강좌를 열며 얼마나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실까 기대와 걱정을 안고 준비해 왔다"며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단 한 분이라도 이번 강연에서 지혜를 얻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입재…90일 정진 돌입

6월 3일, 선지식 초청법회
사부대중 1000여 명 동참
선망부모 극락왕생 발원


금정총림 범어사가 6월 3일 경내 설법전에서 '202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날 입재식에서 사부대중을 향해 법문하고 있는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 조실 혜국 스님.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다가오는 우란분절을 앞두고 선망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90일간의 백중지장기도 정진에 돌입했다.

범어사는 6월 3일 경내 설법전에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202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대덕 스님들의 릴레이 법문을 통해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하고 참된 수행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입재 법석에는 금봉선원 조실 혜국 스님이 법사로 나서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혜국 스님은 "조상 천도는 돌아가신 이를 위한 기도를 넘어 맑은 정신을 후손에게 이어주는 일"이라며 "기도 중 일어나는 번뇌를 내 마음속 찌꺼기를 비춰보는 수행의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했다. 이어 "분별심을 내려놓고 스스로 마음의 등불을 밝혀 중생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대중의 부단한 정진을 독려했다. 정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한 몸으로 법당에 나와 법문을 듣는 것 자체가 부모와 조상이 맺어준 크나큰 은혜"라며 "매주 이어지는 14번의 선지식 초청법회에 꾸준히 동참해 앞으로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선지식 초청법회는 오는 8월 30일까지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진행된다.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6월 13일)을 시작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7월 18일), 수불 스님(8월 8일),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8월 13일),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8월 22일) 등 14명의 선지식이 차례로 법상에 오른다. 회향 법문은 8월 30일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가 맡아 90일 기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도림사, 환경보전 유공 부산시장 표창

6월 5일, '제31회 환경의 날' 맞아
보자기 활용 등 자원 순환에 앞장



부산 도림사(주지 정찬 스님)가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부산시는 6월 5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제31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환경보전 유공자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도림사는 민간부문 유공자로 선정됐으며, 이날 기념식에는 주지 정찬 스님이 사찰과 신도 대표로 참석해 표창을 받았다.

도림사의 이번 수상은 우연히 시작된 사찰 주변 정화 활동이 30년 넘게 신도들의 자발적이고 꾸준한 환경운동으로 이어진 결과이다. 주지 정찬 스님은 1992년 사찰에 부임한 뒤, 1995년 어린이 법회를 개설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절 뒷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도량 안팎을 청정하게 유지하려는 소박한 마음에서 출발했다.

정찬 스님은 "그때는 환경보호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저 절 주변이 지저분해 정화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며 "우연의 일치로 그 실천이 올해로 꼭 31년이 되었고, 평소 쓰레기를 줍던 습관이 자연스럽게 신도들과 함께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신도들은 사찰 내에서 개인 물컵을 사용하고 '빈 그릇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나아가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지구사랑가방(에코백)' 8000여 개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고, 비닐봉투 대신 직접 접은 신문지 봉투나 보자기를 활용하는 등 자원 순환에 앞장서 왔다.

최근에는 부산녹색구매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찰 내 녹색제품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버려지는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 새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플라스틱 방앗간' 프로젝트에도 동참하며 지역사회의 친환경 소비문화를 이끌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호국 법석' 홍법사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 유훈
순국선열 · 호국영령 넋 기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가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독성각 앞 잔디마당 특설무대에서 '제36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를 봉행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발원했다.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는 홍법사 창건주 고(故) 하도명화 보살의 원력에서 비롯된 행사다. 하 보살은 생전 자신의 제사를 따로 지내지 말고 현충일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려달라는 뜻을 남겼다. 홍법사는 이를 받들어 36년째 바라밀재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에는 불자와 시민, 한국전쟁 참전용사 가족, 주한미군 관계자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호국정신을 되새겼다.

심산 스님은 "오늘의 홍법사는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님의 뜻과 수많은 사람의 정성이 모여 이룬 결과"라며 "그 정신을 잘 이어가고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법회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삼광사 '어린이·청소년 문화아카데미'

예술 체험 · 인성 함양 프로그램
6월 중 선착순 모집…전액 무료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용암 스님)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인성 함양을 돕기 위해 다채로운 예술의 장을 마련한다.

삼광사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경내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아카데미'를 개강한다. 프로그램 모집은 6월 중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함께 웃고, 함께 배우며 놀이처럼 즐기는 문화예술 교육'을 목표로 기획됐다. 참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세상을 배우고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은 매주 일요일 연령별 맞춤 과정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일정은 △합창(어린이·청소년 30명, 오후 1~3시) △음악줄넘기 및 칼림바(어린이 30명, 오후 3~4시) △풍물·난타(청소년 20명, 오후 2~4시) 등 총 4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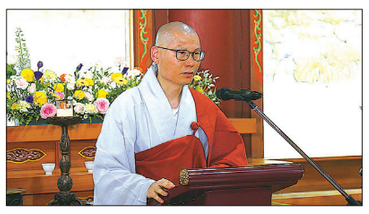
삼광사 어린이·학생회에 가입한 회원은 우선 선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삼광사 종무실 또는 교무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051-808-7111~6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고성 운흥사, 제296회 영산대재

6월 7일, 호국의 달 맞아
순국선열 극락왕생 발원



경남 고성 운흥사(주지 월암 스님)는 6월 7일 '제296회 호국영령과 국태민안을 위한 영산대재'를 봉행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주지 월암 스님은 봉행사에서 "임진왜란 당시 사천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처음 출격시켜 왜선을 격파한 역사적인 전투"라며 "총상을 입은 이순신 장군이 이 지역 차나무에서 얻은 기름으로 상처를 치료했다는 전승은 남해안 차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운흥사를 비롯한 지역 사찰들이 전통 차문화를 복원하고 계승해 호국과 수행의 정신을 후대에 전해야 한다"며 "오늘 영산대재의 공덕이 모든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으로 이어지고 나라의 평안과 국민 화합, 지역사회의 안녕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격려사에서 "운흥사 영산대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대표적인 불교문화 행사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동련, 제80차 전국지도자연수회 개최

6월 20~21일, 경주 황룡원서
'사회정서학습' 관계기술 익혀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미수 스님)이 다가오는 여름불교학교를 앞두고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과 배움의 장을 마련한다.

(사)동련은 오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제80차 전국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우리가 만나는 붓다피아'를 주제로 80명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연수회의 핵심 키워드는 사회정서학습(SEL, Social Emotional Learning)의 '관계기술'이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대두되는 소통과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쟁이 아닌 공존의 가치를 일깨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율동, 협동놀이, 만들기 활동 등을 통해 '나'로부터 '우리'로 확장되는 연결감을 체험하며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의 밑거름을 다지게 된다.

또 연수 첫날인 20일 오후 4시에 봉행되는 입재식에서는 '제42회 전국연꽃문화제' 대상 시상식이 함께 거행된다. 시상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상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미수 스님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붓다피아의 여정에 함께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 만디서 모스플라이 초대전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화·판화·미디어 작품 선보여



울산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2 전시실에서 아티스트 모스플라이(mothfly) 초대전 'Sorry, I'm Late'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국내외 아트페어와 단체전을 통해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모스플라이의 여섯 번째 개인전으로, 작가 특유의 위트와 유머를 통해 삶의 다양한 감정과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들이 소개된다.

모스플라이의 작품은 거창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솔직하게 드러낸다. 밝고 유쾌한 화면 속에는 피로와 냉소, 외로움이 공존하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비극을 유머와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작가만의 시선이 담겨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원화와 판화, 미디어 작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관람료 무료. 052-243-9500 성낙두 경남지사장